

페미니즘의 문턱에서

[서평] 권보드래 외 12인 공저·오혜진 기획(2018),

『문학을 부수는 문학들』, 민음사, 428쪽.

이 소 영*

1. 진보의 성차(性差)와 ‘문턱’으로서의 페미니즘

최근 한 대학교의 사회학과 학생들은 공식인 전임교원 자리에 “여성학을 전공한 여성 교수”를 뽑아달라는 대자보와 현수막을 붙였다. 이들은 젠더 문제가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여성이 교수가 되기 힘든 한국 사회 내 권력구조의 문제, 사회학과 여학생들에게 여성학·여성 교수가 왜 중요한지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였지만, 대학교 측의 공식적인 입장은 “젠더나 특정학문을 전제하고, 임용 후보를 선정할 계획이 없다”라는 것이었다.¹⁾ 이는 민주화 이후 대학생들

* 서울대학교 글쓰기지원센터 튜터

- 1) “한정된 교원 TO 안에서, 연구실적이 뛰어나고 학생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줄 수 있는 교원을 채용해야 한다”라는 일견 합리적으로 보이는 주장은, “사회학과가 개설된 서울시내 11개 종합대학(여대 제외) 전임교원 85명 중 여성은 단 11명에 불과하다”는 사실과 견주어봤을 때, 그 진위를 의심하게끔 한다. [“여성 교수 뽑아주세요”...대학생들 ‘이유있는’ 증원 요청], 『헤럴드 경제』, 2018.10.30. (<http://news.>

이 냉전체제와 군사정권 하에서 금기시되었던 현대사·정치경제학·사회철학을 제도권 학문 내에 안착시키기를 요구하고, 이를 대학 당국이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나섰다는 역사적 사실과 비교해보면 매우 의미심장하다고 할 수 있다.²⁾ 민주화 이후와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대학의 현실을 곧바로 대조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겠지만, 두 사안을 대하는 대학 당국의 온도 차는 진보적인 감각에 내재한 성차(性差)를 환기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여성의 진보에 대한 반격으로서의 ‘백래시’로 이해될 수 있다.³⁾

이 점에서 “성정치”를 “인식의 기준”으로 삼아 “‘87년 체제’ 이후 이미 달성됐다고 믿어졌던 한국사회와 한국문학(장)의 민주주의”(8쪽)를 심문에 부친 『문학을 부수는 문학들』은 이 시대의 가장 전위적인 학문은 다름 아닌 페미니즘임을 실감하게끔 한다. 이 책은 ‘페미니스트 시각으로 읽는 한국 현대문학사’를 부제로 달고 있다. 그러나 페미니즘 리부트가 본격화되기 이전, 2014년의 시점만 해도 한 연구자는 “‘여성’ 문학사 서술이 끝내 실패할 기획임에는 분명”하다는 비관적인 확신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문학사로 응집되는 보편성에 대한 열망의 귀결”이자 “정체성 정치 본래의 성격이 야기한 결과” 때문인 것으로 설명되었다.⁴⁾ 이렇듯 여성학과 젠더사회학을 둘러싼 현 사회적 갈등과 2014년경 여성 문학사에 대한 학문적 진단에 비추어 보았을 때,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출간된 『문학을 부수는 문학들』은 엄연히 존재하는 제도권 학문 내의 유리천장에도 불구하고 ‘페미니스트 시각’에 입각한 한국 현대문학사에 대한

heraldcorp.com/view.php?ud=20181030000186#) 검색일: 2018.11.23.

- 2) 「서울대의 마르크스—레닌 講座」, 『경향신문』, 1988.1.20.; 「需要에 副應하는 學問」, 『동아일보』, 1988.3.9.; 「서울대 교수 채용 때 공개 강의」, 『한겨레』, 1993.11.10.
- 3) 수전 팔루디에 의하면 백래시는 “항상 여성들이 크게 활보하고 있다는 인식”, 즉 “여성의 ‘진보’에 대한 대응”으로서 촉발되었다. 수전 팔루디, 황성원 역, 손희정 해제, 『백래시』, arte, 2017, 44쪽.
- 4) 소영현, 「문학사의 젠더」, 『민족문학사연구』 56, 민족문학사연구소, 2014, 83쪽.

메타적 서술이 충분히 가능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절망과 희망의 공존은 페미니즘이 현재 ‘문턱’에 서 있음을 드러낸다. 여기서 ‘문턱’이란 패트리샤 T. 클라프가 「정동적 전회」라는 글에서 사용한 용어로 “미결정이라는 점”이며, “그 점을 넘어서면 원인으로 되돌릴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나는 극한점”을 뜻한다. 클라프는 “문턱에서 잠재성을 기억하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말하는데,⁵⁾ 이때의 잠재성은 “정동 이론이 가장 고심하는 질문”인 “약속인가, 위협인가?”를 상기시킨다.⁶⁾ 이러한 정동 이론의 고민은 지금 여기의 페미니즘에도 적용될 수 있을 터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문학을 부수는 문학들』은 텍스트 내적으로 모종의 긴장을 담고 있는 연구서로 보인다. 이는 이 책의 내용과 형식의 모순에서 기인하는 것인데, 기획의 단계에서부터 ‘페미니즘 문학사’가 아니라 ‘페미니즘 시각’을 내세웠으며, 이에 근거해 한국 현대문학사를 대상화·상대화하여 “주류 문학사의 남성 중심적 질서가 규정한 ‘문학(성)’”을 부수는 복수의 문학을 상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부는 근대 초기, 2부는 1950~1970년대, 3부는 1970년대부터 오늘날까지의 한국문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을 선조적으로 배열함으로써 ‘한국 현대문학사’의 전형적인 구성 방식을 떠오르게 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무엇이 ‘좋은 문학’이고 ‘문학적인 것’인지, 어떤 작품이 한국사회의 새로운 민주주의를 상상하는 데 필요한 자원인지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가 결정하겠다는 것”(17쪽)이라는 발언은 앞선 연구에서 우려했던 보편성과 중심성에 대한 강한 지향으로 비춰지기도 한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선불리 ‘약속인가, 위협인가?’라는 질문에 답하려고 하기보다는 ‘문턱’으로서의 페미니즘이 드러내는 미결정과 잠재성을 좀 더 음미해보고자 한다.

5) 패트리샤 T. 클라프, 「정동적 전회」, 멜리사 그레그·그레고리 시그워스 편저, 최성희·김지영·박혜정 역, 『정동이론』, 갈무리, 2015, 361쪽.

6) 그레고리 J. 시그워스·멜리사 그레그, 「미명의 목록[창안]」, 멜리사 그레그·그레고리 시그워스 편저, 최성희·김지영·박혜정 역, 『정동이론』, 갈무리, 2015, 30쪽.

이를 위해 이 연구서에서 주창하고 있는 ‘페미니스트 시각’은 좀 더 세밀하고 정치하게 다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필자의 관점에 따라 이 책에 실린 열세 편의 연구들에서 발견되는 “모종의 공통성과 연속성”(10쪽)을 재구성한 후, 이를 통해 이 연구서가 취하고 있는 ‘페미니스트 시각’을 추출하고 이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2. 페미니스트 독자와 문학(들)의 대화

필자가 파악한 이 연구서의 공통성과 연속성은 무엇보다 “새 세대 독자들”, “새 세대 문학주체들”(8~9쪽)을 강하게 의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젊은 독자들이 새롭게 장착한 문제의식과 감수성을 중심으로 한국 문학사를 다시 읽어보자는”(8쪽) 목표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그러므로 어떤 것이 좋은 문학과 문학적인 것인지, 한국사회의 새로운 민주주의에 필요한 자원으로서의 작품은 무엇인지를 “우리”(17쪽)가 결정한다고 할 때, 이 ‘우리’에는 일정 부분 독자의 지분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책은 중심과 보편에 대한 강렬한 열망보다는 ‘페미니스트 독자’에 대한 열렬한 구애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각 페이지나 각 문장에 담긴 생각을 사유하고 성찰하며 반응”함으로써 “저자뿐 아니라 이 책을 읽는 모든 사람과 살아 있는 대화를 나누는” 그러한 페미니스트 독자의 상을 상정하고 있는 것이다.⁷⁾ 이 책에 수록된 열세 편의 연구들은 그동안 한국 현대문학사에서 매우 자명한 것으로 여겨졌던, 남성적인 것과 여성적인 것, 문학적인 것과 비문학적인 것, 그리고 정치적인 것과 비정치적인 것을 가르는 기율들의 구성 원리에 의문을 제기하고, 이를 문제화하고 있는데, 이는 신시아 인로에 의하면 매우 정치적인 행위이다. 그

7) 신시아 인로, 김엘리·오미영 역, 『군사주의는 어떻게 패션이 되었을까』, 바다출판사, 2015, 11쪽.

는 사람들이 질문하기 시작하면서 무언가 당연하다는 생각을 멈추고, 어떤 문제를 사회적 관심거리로 만들면서 공적으로 해결 가능하다는 믿음을 가질 때, 그 문제는 필연적으로 이슈화된다고 주장한다. “이슈로 만드는 것은 정치적인 활동이다. 그것은 새로운 호기심을 계발하는 것에 더하여 공적 시민으로서 해야 할 역할을 하는 많은 사람에게 그 호기심을 퍼뜨리도록 한다”는 것이다.⁸⁾

이를 고려했을 때, 이 책이 인식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성정치’는 매우 실천적이고 독자 지향적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⁹⁾ 이 책의 연구들이 수행하고 있는 성정치는 크게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진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첫째, 남성성과 여성성의 “젠더 이분법의 눈속임을 폭로”(263쪽)하고 이를 “역사적 담론 구성체”로서 바라봄으로써 “더 많은 텍스트들, 더 많은 가능성들과 조우”(176쪽)하는 것(권보드래, 류진희, 허윤, 조서연, 김은하). 둘째, “여성이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이야말로 페미니즘의 출발”(89쪽)이라는 전제 하에 “읽기와 쓰기를 둘러싼 여성에 대한 억압과,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목소리를 내고자 했던 여성들의 열망의 구조”(201쪽)와 역사를 살펴봄으로써 “2018년 ‘권위를 향해 말하는 사람들’의 선배들이자, 한국문학과 한국사회에 지각변동을 가져

8) 위의 책, 34쪽.

9) 김주희에 의하면, 이는 2015년 이후 SNS를 중심으로 페미니즘 열풍을 주도하고 있는 ‘독학자’ 페미니스트들의 ‘서적-이후적 독서양식’과 긴밀한 연관을 맺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온라인을 통해 페미니즘을 접하고 자신의 성별로 인한 차별 경험을 SNS에 공유하며, 페미니즘 지식을 유통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이들은 온라인에 머무르지 않고 페미니즘 관련 대중 강연, 독서모임, 세미나 등에서 페미니즘 지식을 반복적으로 갱신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김주희, 「‘독학자들’의 페미니즘과 페미니스트 지식문화의 현재성에 대한 소고」, 『민족문화사연구』 63, 민족문화사연구소, 2017 참조. 『문학을 부수는 문학들』이 애초에 10회의 강좌로 기획된 후, 열 편의 강의 원고와 추가로 의뢰해 받은 세 편의 원고를 모아 책으로 출간하였다는 사실에 주목해보면, 이 연구서는 이러한 ‘독학자’ 페미니스트들의 ‘서적-이후적 독서양식’에 조응하는 사례인 것이다.

오고 있는 바로 그 존재”(250~251쪽)를 확인하는 것(심진경, 장영은, 강지윤, 정미지, 김미정). 셋째, 죽음정치의 극한으로 내몰렸던 일본군 ‘위안부’와 죽음정치적 노동으로서의 성노동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커밍아웃, 즉 “비가시적이었던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행위”(121쪽)에 담긴 의미를 탐구함으로써 흔히 페미니즘의 한계로 지적되었던 “정체성정치에서 발원하지 않는 진보와 연대의 정치란 성립할 수 없”(363쪽)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혜령, 이진경, 오혜진).

그러나 이 세 층위의 성정치가 뚜렷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여성이 자신의 몸과 섹슈얼리티에 대해 말하는 것을 금기시하는 규범과 이에 대한 전복에 초점을 두면, 앞선 분류를 뛰어넘어 김은하와 심진경, 그리고 이혜령의 논의는 시대와 대상을 뛰어넘어 동일한 문제의식으로 묶이기도 한다. 올해 초부터 이어진 미투 운동과 ‘피해자다움’을 드러내지 않는 피해자들을 향한 가혹한 비난을 눈여겨보면, “여성은 시대가 요구하는 모습으로 살지 않는 한 어떤 식으로든 위협에 처할 수 있”(331쪽)다는 통찰에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진다. 또한 현 20~30대 여성 대중 독자의 정치적 급진화의 의미와 그 위치를 가늠하는 데 있어 유효한 참조점이 되어준다는 측면에서 김은하와 김미정, 그리고 오혜진의 연구는 앞선 분류를 넘어 필연적으로 마주하기도 한다. 이를 고려하다 보면, 애초에 이 연구서가 ‘페미니스트 시각’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던 것에는 기획자의 숨은 의도가 있는 것 같기도 하다. 즉, 이 책에서 어떤 ‘모종의 공통성과 연속성’을 발견하느냐에 따라 각 독자는 각기 다른 ‘문학들’과의 대화를 시작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분명해지는 것은 이 책이 취하고 있는 페미니즘 시각뿐 아니라 독자의 페미니스트 시각일 수 있기 때문이다.

3. 재현의 심급과 그 너머

이 책에서 페미니즘 시각에 대한 단초를 찾을 수 있는 곳은 바로 첫 번째 계열에 포진해있는 허윤과 조서연의 연구이다. 허윤은 남성성이란 역사적·문화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라는 점을 밝히면서 정전화된 남성적 리얼리즘에 의문을 제기하고, 문학적 체계모니를 비수행하는 비(非)남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서연 역시 페미니스트 입장에서 남성성을 논한다는 것은 남성성이 단일하고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젠더 관계 속에서 수행되고 구성되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이러한 관점은 첫 번째 경향의 다른 연구들도 공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권보드래와 김은하, 그리고 류진희의 연구는 역사적 질곡마다 새롭게 구성되는 여성(성) 혹은 여성적인 것의 의미를 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근대 초기 여성을 둘러싼 담론과 표상 체계의 차원에서 여성의 위치를 묻거나, 1980년대 운동권 문화에서 여성적인 것이 어떻게 정의되고 규정되었는지를 살핀다. 이러한 관점은 흔히 남성 젠더적인 것으로 읽어왔던 전쟁 서사와 혁명 서사, 나아가 보수적인 것으로 치부되었던 신소설을 여성의 서사로 읽을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각을 급진적으로 밀고 나가다보면, “신소설은 ‘여성적인’ 장르이다”(21쪽)라는 서술도 가능해진다. 그러나 이러한 수사는 여성(성)이 동시대 내에서도 담론과 표상 체계에 따라 그 의미를 달리한다는 점에 주목해보면, 경계해야 할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이러한 레테르는 신소설에서 발견해낸 ‘집 밖의 존재’로서 현실적 육체로 등장한 여성들,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한 비(非)양반의 감각 등 연구자가 발견한 다채로운 의미들에도 불구하고, “성적 수난이라는 형식”(24쪽), 즉 ‘여성(성)’을 논함에 있어 여성이 전형적으로 재현되어 왔던 방식 그 자체를 부수는 것을 가로막는다는 인상을 줄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여성(성)’은 언제나 되물어져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해방기 여성 작가들의 정치적 주체화 전략을 살펴본 류진희의 논문은 하나의 시사점을 준다. 식민지 시기 남성 작가들이 요구했던 “맨얼굴 드러내기”(53쪽)에서 벗어난 여성 작가들의 작품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그들이 재현의 물을 거스르고 있다는 점이었다. 특히 이선희와 지하련은 과거 자신들의 분신이었던 여성 인물들 대신 남성 소지주와 소시민을 주인공으로 삼아 프롤레타리아 혁명에 대한 절망과 진보적 민주주의에서 소거된 양심의 문제를 다룬다. 여성 작가들이 자신들의 페르소나로서 남성 인물을 선택한다는 사실, 그리고 이에 주목해야 한다는 연구자의 지적은 역설적으로 그동안 여성 작가들에게 재현 가능한 범위란 “자신의 삶, 내면”(53쪽)뿐이었음을 드러낸다. 이는 결국 “재현의 정치학”(55쪽)에 대한 사유로 이끈다. 여기서 지식이란 항상 재현의 문제이며, 재현의 근저에는 권력이 자리하고 있다는 에드워드 사이드의 지적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재현은 이데올로기적 개념들에 구체적인 형식을 부여하며, 어떤 기표로 하여금 기의를 나타내도록 한다. 그러나 이때 어떤 재현이 진리로 받아들여질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권력이다.¹⁰⁾ 여성(성)과 남성(성)에 대한 재현과 지식의 불/가능성을 결정짓는 것은 결국 남성중심적인 문학 권력인 것이다. 그러나 페미니스트 시각은 기존 젠더 관계를 벗어나는 다양한 인물 형상들을 살살이 찾아내고 여성(성)과 남성(성)을 새롭게 구성하는 데 일조한다. 이는 권력의 손길이 미처 닿지 못한 서사의 “전복적인 틈새”(282쪽)가 언제나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한다. 재현과 지식은 항상 권력이 의도하는 바를 배반하고야 만다는 중요한 사실을 환기시키는 것이다.

10) 빌 애쉬크로프트 · 팻 알루와리아, 윤영실 역, 『다시 에드워드 사이드를 위하여』, 앨피, 2005, 132면.

4. 쓰기와 읽기의 아포리아(aporia)와 여성 독자

두 번째 맥락의 연구들은 남성 중심적인 문학 질서에 굴하지 않았던 여성들의 읽기와 쓰기를 탐구했다는 점에서 앞서 다룬 논의들과 접맥된다. 장영은은 근대 여성지식인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 스스로 이야기하고 글로 남기는 행위 그 자체가 페미니즘의 시작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심진경, 정미지, 김미정의 논의는 여성이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리 녹록치 않음을 보여준다. ‘자전적 글쓰기’, ‘고백의 서사’, ‘자기발견의 서사’와 같은 여성적인 것으로 젠더화되어 온 미학적·양식적 개념들의 기원을 추적해나가다 보면, 결코 아름답지 않은 탄생을 목도해버리곤 하기 때문이다. 심진경에 의하면 이 개념들은 “여성들의 글쓰기를 사생활과 결부시켜 스캔들화하고 그것을 여성 작가 고유의 것으로 할당했던 식민지 시대의 오랜 문학적 통치”(64쪽) 아래 배태된 것이다. 즉 남성 중심적인 문학적 규율 권력이 요구하는 바를 내면화한 것으로, 이는 여성문학의 태생적 타율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아포리아적 구조는 여성들의 읽기와 쓰기에 끊임없이 작용한다. 일례로 정미지에 따르면, 기성문인들은 문학소녀들에게 흔히 여성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센터멘털한 감성을 극복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여성적’이면서 ‘여고생 다운’ 문학을 할 것을 강요했다. “결국 문학소녀들이 ‘작가’가 되는 길은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여성성’을 되묻는 지난한 작업의 반복이었다.”(214쪽)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두 번째 경향의 연구들이 이러한 아포리아적 구조를 돌파했던 이들로 ‘독자’에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김인숙을 비롯한 여성 작가들이 시대를 막론하고 어떤 형태로든 “‘착한 여자’임을 증명”(331쪽)해야만 하는 아포리아적 구조에서 벗어나기 어려웠을 때, 심지어 전체린마저 공론장에서 “말해져도 되는 것”과 “말해지면 안 되는 것”(239~240쪽) 사이에서 내적 분열을 드러내고 있을 때, 남성들이 문예 공론장에서 ‘전체린-루이제 린저’를 담

론화하고 기록한 방식과는 전혀 다른 정치적인 문맥에서 루이제 린저를 읽어낸 것은 바로 여성 대중 독자들이었다. 그들은 1975년 내한한 루이제 린저에게 정치적인 질문을 서슴지 않았으며, 특히 “10대 소녀작가”(220쪽)로 불렸던 이들은 『생의 한가운데』의 ‘니나’에 스스로를 동일시하고 가정이 아닌 사회에서 자신의 세계를 만들어나갈 것을 꿈꿨다. 즉 루이제 린저의 독자들은 여성교양소설의 불/가능성 자체를 파열하고 절단한 것이다. 이러한 “독서의 기억”(181쪽)은 강지윤의 사례에서 보이듯이 김승옥 소설에서 “초역사적이고 보편적인 것으로 보이는 ‘개인-내면’에 기입된 젠더적 성격”(187쪽)을 발견하게끔 이끌며, 김승옥에 대한 한국문학사의 지배적인 해석을 정면으로 반박할 수 있는 자양분이 되어 준다. 이때 ‘문학소녀’는 여성의 읽기와 쓰기에 대한 젠더 이데올로기에의 순응과 이탈을 동시에 드러내는 표상으로 재의미화된다. 이들 연구들은 현 20~30대 여성 대중 독자들을 주축으로 한 페미니즘 독서의 베스트셀러화 양상을 역사화·계보화할 수 있게끔 한다는 점에서 매우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지금 여기 페미니스트들의 읽기와 쓰기에 담긴 정치적 의미를 역사적인 연속성 위에 예각화하는 것이다. 이는 페미니즘 지식 문화의 외연을 확장하는 계기로 작용한다.¹¹⁾

그러나 쓰기에 관해서라면 여성들은 여전히 “공적인 지면에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방법”에 편안해지지 않는 듯 보인다.¹²⁾ 페미니스트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성들조차 “개인적인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해서 페미니즘 의제로 연결되는 에세이라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쓸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러한 방식의 글쓰기로 찬드라 탈파드 모한티와

11) 이러한 역할은 『문학을 부수는 문학들』에만 해당된다고 할 수 없는데, 김주희에 의하면 ‘독학자’ 페미니스트들은 페미니즘 도서를 매개로 온·오프라인의 정치적 공론장을 넘나들며 ‘서적-이후적 독서 양식’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주희, 앞의 글 참조.

12) 손희정, 「서문 우리들의 울퉁불퉁한 페미니스트 모먼트」, 권김현영 외 5인, 『페미니스트 모먼트』, 그린비, 2017, 5쪽.

같은 외국 여성학자들의 서문을 떠올리며, 이를 모델로 삼으려는 모습을 보면, 여성들은 지금도 아포리아에 갇혀 있는 것만 같다.¹³⁾ 이러한 상황을 도처에서 목격하였을 때, ‘문턱’으로서의 페미니즘은 아직 오지 않은 것처럼 느껴진다. 그 점을 넘어서면 원인으로 되돌릴 수 없는 거대한 변화는 아직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은 것이다. 이때 사후적인 분석에서 벗어나 문턱에 도달하는 가능성의 조건들을 역(逆)으로 조성하는 분석, 즉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클라프의 주장은 매우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¹⁴⁾ 페미니즘의 ‘문턱’은 우리에게 어떤 미결정과 잠재성을 보여주는가? 우리는 그러한 ‘문턱’에 도달하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여기서 논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다. 앞서 언급했던 여성이 자기 자신에 대해 말하고 쓰는 것이야말로 페미니즘의 출발이라는 주장이 더욱 절실하게 임박해오는 것이다. “여성문학은 매 시기 당대의 조건 속에서 언제나 그런 한계와 억압을 여성해방에 대한 나름의 문제의식과 방법론을 통해 조금씩 돌파하며 진전을 이루어 왔다”(66~67쪽)라는 심진경의 발언은 여성문학의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는 길은 여성문학이 여성의 조건에 관해 끊임없이 질문하고,¹⁵⁾ 이를 읽고 쓰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13) 특히 한채윤의 다음과 같은 발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글을 쓰려고 할 때 들었던 고민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100인위 이야기를 써도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었어요. 두 번째는 이게 개인사와 함께 버무려진 이야기를 쓰려다 보니 굉장히 검열을 하게 되더라고요. 약간 무슨 후일담식의 자기 고백처럼 읽힐까봐…… ‘내가 뭐라고 이런 걸 쓰나? 이런 식의 글을 써도 되나? 이런 개인의 일기를 써도 되나?’ 하는 검열이 좀 있었어요.” 권김현영 외 5인, 「기획 대담 다시, 새롭게, 페미니스트 모먼트」, 위의 책, 214-226쪽.

14) 패트리샤 T. 클라프, 앞의 글.

15) 신시아 인로, 앞의 책, 35쪽.

5. 벽장의 문턱에서 — 커밍아웃과 정체성정치

‘커밍아웃’은 “동성애자가 벽장 속에 있는 것처럼 비가시적이었던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행위”(121쪽)를 가리킨다. 이해령에 의하면 커밍아웃이야말로 은신처에서 벗어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자아를 노출하고 개시하는 이야기이다. 이는 앞선 논의와도 연결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이해령과 이진경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커밍아웃’을 중요한 방법론 혹은 정치적 실천으로 의미화함으로써 정체성정치에 대한 오랜 의구심을 극복하고자 한다. 오혜진의 글 역시 페미니즘 소설을 정치적 올바름과 정체성정치에 사로잡힌 것으로 간주하는 비평적 백래시를 정면으로 반박한다는 점에서 동료로 묶어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이진경과 이해령의 논의부터 살펴보면, 성노동자와 ‘위안부’는 여성살해의 위험에 항시적이고도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는/있었던 존재들로서 죽음 정치의 직접적 대상자였다. 따라서 이들은 인구의 일부로 간주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을 가시화하는 수단으로서의 커밍아웃은 더욱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이들이 ‘위안부’ 혹은 성노동자로서 자신들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할 때, 정체성정치가 갖는 실천적 의미의 중요성은 결코 작아지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위안부’ 혹은 성노동자가 스스로를 커밍아웃해야만 이 사회에 자신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은 한편으로 정체성정치가 약자에게 매우 가혹한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오카 마리는 그들이 겪고 있는 폭력이, 그들에 대한 담론적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는 표상될 수 없는 사람들을 ‘서발턴’이라고 명명한다. 그는 “설령 그렇게 이름 붙인 사람이 그녀 자신이라 해도 그것은 폭력이다”라고 단언한다.¹⁶⁾ 커밍

16) 오카 마리, 『그녀의 진정한 이름은 무엇인가』, 현암사, 2016, 27-29쪽.

아웃은 이러한 의미에서 자신에 대한 폭력을 수반한다. 물론 여성이 자신의 몸과 섹슈얼리티에 대해 침묵하기를 강요받아왔던 저간의 사정을 고려하면, 그러한 폭력에도 불구하고 ‘위안부’로서 혹은 ‘성노동자’로서 스스로를 정체화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성노동자들의 “인권”과 “성 노동 및 생존권”을 둘러싼 페미니스트들의 침해한 대립을 염두에 두었을 때,¹⁷⁾ 성노동자들의 커밍아웃은 좀 더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들이 “노동자, 즉 일하는 사람으로 인정”(307쪽)받는 것이 “상업화를 통한 성적 폭력의 제도화”(289쪽)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릴 수 없음을 자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커밍아웃은 “거짓 인식론의 평형 상태를 깨 버리기 때문에 위험하고 무거운 것”(122쪽)이라는 이브 세즈윅의 말을 떠올리면, 이들 연구들이 밝혀낸 결과물들은 충분히 값지다고 할 수 있다. 한국문학사에서 좌파 민족주의적 남성주의가 노동계급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착취해왔다는 것을 과감없이 밝혀낸다는 점에서, 2000년대 한국 비평계의 ‘장편대망론’에 담긴 1980년대 리얼리즘 미학에 대한 향수와 남성 중심의 문학사에 대한 욕망을 날날이 파헤친다는 점에서, 이들 연구들은 나름대로의 ‘페미니스트’ 정체성으로 커밍아웃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작업을 살펴다보면 젠더를 묻지 않고 진보를 논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라는 의문마저 품게 된다. 이는 오혜진이 제기하였던 질문, 즉 페미니즘 소설의 “정치적 올바름은 나쁜 것인가”(360쪽)를 떠올리게 하는데, 이 글의 흐름에 따라 질문을 조금 바꾸어 ‘정체성정치’는 나쁜 것인가라고 물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정체성정치’의 한계라는 비판이야말로 여성 문학사 서술의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가장 강력한 원점이었기 때문이다.¹⁸⁾

17) 이진경이 매춘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매춘에서 다양하고 위계화된 집단
의 사람들의 이익에 봉사하는 산업을 규제하는 것이 직접적이면서 중재적인 목표”
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진경, 『서비스 이코노미』, 소명출판, 2015, 226-227쪽.

이 지점에서, 조금 전 참고하였던 오카 마리의 사유를 다시금 되새길 필요가 있다. 그는 “이름이란 나의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를 향해 부르는 타자의 것이기도 하다”라고 말한 바 있다.¹⁹⁾ 이는 이혜령의 논의에서 “‘할머니’는 ‘소녀’에서 곧바로 늙은 ‘여성 노인’으로 물성화된 ‘위안부’의 성 정체성의 이름이기 전에, “할머니!”하고 그녀들에게 이야기를 듣고자 했던 어린 여성들이 수행한 호명이기도 했다”(143쪽)라는 분석과 오버랩된다. 즉 ‘할머니’라는 물성화된 성 정체성을 가리키는 이름을 어린 여성들이 부르는 순간, 그 이름은 그들의 것이 된다. 이는 위안부 운동이 세대를 뛰어넘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이유가 다름 아닌 ‘할머니’라는 정체성에 있음을 보여준다. 이렇듯 이혜령은 정체성정치가 또 다른 진보와 연대의 정치로 연결되는 순간을 아름답게 포착해낸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 페미니즘 소설이 “‘이성애자-기혼-비장애 중산층-비트랜스 여성’의 시민권을 확보하려는 목적에 수렴되고 있다”(361쪽)면서, “다원적 성별 및 섹슈얼리티 체계와 무관한 ‘정치적 올바름’이나 ‘미학적인 것’이라는 개념”(363쪽)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오혜진의 주장은 정체성정치가 놓치고 있는 부분을 기민하게 인식한 끝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망각하고 있는 타자의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사후적일지라도 최대한 다양한

18) 소영현의 논의는 여성문학사 서술의 불/가능성의 양자에서 진동하고 있는데, 여기서 기인하는 혼란은 그가 “문학사의 메커니즘을 ‘여성’ 문학사가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문학사 서술은 정체성론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다고 보면서도 끊임없이 “여성 문학사를 포함한 복수의 문학사 서술 기획”을 반복적으로 요청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그러한 요청의 이유를 실패할 것이 틀림없는 문학사 기획의 완수 때문이 아니라 그 기획이 가져올 “‘문학과 사회’의 관계성에 대한 조절, 문학인가 아닌가의 판정까지 포함한 문학에 대한 관점의 재조정, 그리고 문학을 판정할 수 있는 가치에 대한 논란과 독해법의 새로운 발견, 나아가 소수자/타자라는 키워드로 불거져 나온 현실사회의 시스템 자체의 재고”때문이라고 이야기한다. 소영현, 앞의 글, 102쪽.

19) 오카 마리, 앞의 책, 34쪽.

타자들의 목소리에 응답하고자 하는 것이다.²⁰⁾

따라서 벽장의 ‘문턱’을 나섰을 때 우리가 맞닥뜨리는 것은 막다른 벽이 아니라 또 다른 벽장의 문턱을 넘어선 누군가의 손일지도 모른다. 정체성정치를 진보와 연대라는 또 다른 정치의 시작으로 만드는 것이야말로 이 연구서가 장착한 페미니스트 시각이 보여주는 가장 빛나는 장면일 것이다. 벽장의 문턱을 넘어서는 것에서부터 페미니즘이 출발하는 것이라면, 페미니즘이라는 문턱은 그리 멀지 않은 것일 수 있다.

20) 위의 책, 183-185쪽.

